



제16회 기부문화심포지엄
Giving Korea 2016

개인 기부 실태조사 결과 분석

—

연구자

송헌재 |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송헌재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부교수

학력

서울대학교 경제학 전공
Ph.D.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경제학 전공

최근 주요경력

2012.9 –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부교수
2012.9 – 2016.8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조교수
2009.8 – 2012.8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 부연구위원

연구실적

2016

장원진 · 송헌재,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기대자산이 가구저축에 미치는 영향” 경제분석, 제22권 제3호, pp. 33–69
신우리 · 송헌재, “우리나라 노동조합이 여성근로자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 노동경제논집, 제29권 제3호, pp. 99–124.
송헌재 · 고선 · 김지영, “경제자유지수와 지니계수와의 관계 실증분석” 질서경제저널, 제29권 제2호, pp. 103–122.

2015

서영빈 · 송헌재, “중고령 가구의 소득원천별 가구소득이 가구소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재정학연구, 제8권 제3호, pp. 119–147
송헌재 · 김신정 · 형남원, “우리나라 가계의 주택자산 보유와 위험자산의 선택”. 『경제연구』 제33권 제2호, pp. 1–27
송헌재 · 우석진, “보육지원정책이 출산율과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에 미친 거시적 성과 실증분석” 재정정책논집, 제17권 제1호, pp. 3–36
송헌재 · 고선, “경제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CSR의 이론 및 실증 분석: ‘공공재로서 CSR’과 ‘전략적 CSR’을 중심으로” 재정학연구, 제8권 제1호, pp. 111–136

2014

- 송헌재 · 김현아, “출산장려금과 지역 간 인구이동” 응용경제, 제16권 제3호, pp. 165-199
- 송헌재 · 방홍기,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의 고용창출 효과 분석” 경제학연구, 제62권 제4호, pp. 129-167
- 박창우 · 송헌재, “출산장려금 정책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추정” 응용경제, 제16권 제1호, pp. 5-34
- Ham C. J. · H. Song, “The Determinants of Bargaining Power in an Empirical Model of Transfers between Adult Children, Parents, and In-Laws for South Korea,”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Vol. 109, No. 6, pp. 73-86

2013

- 송헌재, “재정패널의 소득증빙자료를 활용한 근로소득자들의 기부금 가격탄력성 추정” 재정학연구, 제6권 제4호, pp. 151-178
- 송헌재 · 김진, “사회서비스 본인부담 차등부과를 위한 가격탄력성 추정과 이론적 논의: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아동 조기개입서비스를 중심으로” 재정학연구, 제6권 제3호, pp. 61-85
- 송헌재 · 정재호, “돼지고기에 대한 할당관세가 가구소비에 미친 영향” 응용경제, 제15권 제1호, pp. 101-122
- 송헌재 · 고선 · 김지영, “종합부동산세 환급금이 가구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 분석” 재정학연구, 제6권 제2호, pp. 89-117
- 송헌재 · 김지영, “출산장려금이 기혼여성의 출산의향에 미치는 영향” 재정정책논집, 제15권 1호, pp. 3-27

2012

- 송헌재, “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한 우리나라 가구의 출산결정요인 분석” 응용경제, 제14권 제3호, pp. 51-78
- 송헌재 · 박명호, “부동산투기 세무조사가 부동산 시장에 미친 영향 분석” 재정학연구, 제5권 제4호, pp. 105-124
- 송헌재, “근로장려세제 도입이 가구 노동공급에 미친 영향” 재정학연구, 제5권 제4호, pp. 37-62
- 송헌재 · 성명재,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효과 분석” 재정학연구, 제5권 제2호, pp. 157-194
- 송헌재, “재정패널 2차년도 이탈가구와 대체가구의 특성 분석” 재정학연구, 제5권 제1호, pp. 97-133

2011

- Ham C. J. · A. Imrohroglu, C. Swenson · H. Song, “Government Programs Can Improve Local Labor Markets: Evidence from State Enterprise Zones, Federal Empowerment Zones and Federal Enterprise Communitie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95, pp. 779-797

2010

- 송헌재 · 김진, “노동패널을 이용한 주관적 동등화 지수 추정” 재정학연구, 제3권 제2호, pp. 97-123

I. 들어가며

올해는 Giving Korea가 시작된 지 16년째 되는 해이다. 우리나라 최초로 민간의 기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00년에 시작된 Giving Korea가 어느덧 10년을 훌쩍 넘어 20년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이다. Giving Korea는 2001년부터는 개인 기부와 기업 기부를 격년으로 번갈아가면서 조사해왔다. 매 짝수년도에는 전년도 개인 기부 실태를 조사하여 발표하고 홀수년도에는 전년도 기업 기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올해 2016년에는 2015년도 개인 기부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였다.

Giving Korea의 역사가 지속될수록 대한민국의 민간 기부현황과 추세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자료로서 그 가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동일한 내용을 반복 조사하다보니 좀 더 다양한 내용을 알아보고 싶은 연구자들의 욕심이 반영된 결과 2014년 개인 기부 실태조사의 설문지를 Giving Korea가 처음 시작된 2000년도의 설문지와 비교해보니 질문의 양이 대폭적으로 늘어났다. 조사범위는 늘어났지만 설문조사의 전체 표본수는 1,000여명으로 유지되다보니 질문에 따라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유의미한 표본수가 확보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2016 Giving Korea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본수를 2,500명으로 늘리는 한편 응답자의 피로도를 줄일 수 있도록 설문항목의 수는 줄이는 방향의 개편을 단행하였다. 그렇지만 단순히 기존의 설문내용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데 머물지 않고, 기부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연구의 영역을 확대하고자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질문 내용을 개발하여 추가함으로써 2016 Giving Korea만의 특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한편 전체 조사비용은 크게 변경하지 않으면서 충분한 표본수를 확보하기 위해 설문 방식에 대해 면접조사에서 전화 설문조사로 변경하였다. 면접원이 응답자를 직접 만나 질문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응답자의 응답시간에 대한 부담이 그다지 크지 않은 면접조사에 비하여, 전화 설문조사의 경우 질문의 내용이 너무 길거나 명확하지 않으면 응답자가 질문을 올바르게 기억하지 못하거나, 질문의 양이 많으면 쉽게 피로하여 더 이상의 응답을 거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올해 개편된 Giving Korea 설문은 최대한 간결하게 구성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조사의 이러한 단점이 반영되어 응답자에게 생소하거나 대답하기에 민감한 일부 문항의 경우 모름 또는 무응답 비율이 면접조사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번 2016 Giving Korea의 개인 기부 실태조사 결과는 조사항목에 따라 모름/무응답의 비율을 함께 고려하여 주의 깊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무응답의 비율이 무시하지 못할 만큼 많은 설문 항목의 경우 이를 포함한 결과를 보고하고 이에 대한 함의도 함께 토론하였다.

이렇듯 Giving Korea가 16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

을 던져봐야 할 것이다. 과연 Giving Korea는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일까? 지난 번 2014 Giving Korea까지는 전체 표본이 1,000여명으로 구성되었었는데 혹자는 아무리 표본설계가 잘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1,000여명만으로는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기부현황을 올바르게 대표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할 지도 모른다. 이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위해서는 민간 기부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와의 비교분석이 필요하다. 즉, 개인의 기부 행위를 조사한 다른 조사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Giving Korea 자료의 신뢰성에 대한 판단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다.

국세청의 기부금공제 현황이 오래전부터 공시되어오고 있기는 하지만 연구자들에게 납세자 개인별 미시자료는 공개되지 않을뿐더러 기부금 공제금액은 세법에서 공제대상으로 인정된 기부금만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의 직접비교는 그다지 의미가 없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2008년부터 조사하여 구축하고 있는 재정패널 자료에서도 민간 기부에 관하여 조사하고 있다. 5,000여 가구를 조사하는 재정패널 자료는 표본의 전국대표성 측면에서 Giving Korea보다 우수하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구 단위의 조사이기 때문에 개인 단위로 조사하는 Giving Korea와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예를 들어 재정패널 자료는 우리나라 국민의 기부 참여율이나 평균 기부금액수를 추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다만 가구 단위의 기부금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개인 기부 총량을 추정할 경우에는 Giving Korea 자료를 사용한 추정 결과와의 비교가 가능하다.

그런데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2011년 처음으로 전국의 38,000여명을 대상으로 민간의 기부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였다¹⁾. 사회조사는 Giving Korea와 마찬가지로 격년으로 기부금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져서 현재까지 2011년, 2013년, 2015년의 개인 기부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가 공개되어 있다²⁾. 따라서 3개년도 사회조사의 기부 참여율과 평균 기부금액 수준은 Giving Korea 자료와 상호 검증이 가능해졌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첫째, 2016 Giving Korea 자료 구축과정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과 더불어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그 함의를 분석하였다. 둘째, 이번 조사에서 새롭게 조사한 항목을 중심으로 질문의 취지를 설명하고 조사 결과를 토론함으로써 개인 기부에 대한 독자들의 사고와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노력하였다. 셋째, 그동안 축적된 Giving Korea

1) 2009년 사회조사에서는 지난 1년 동안 후원금(기부금)을 내신적이 있는지 여부와 있었다면 몇 회의 후원(기부)이 있었는지를 묻는 문항이 있었다. 그렇지만 기부한 금액에 대한 조사와 그밖에 기부관련 다양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 기부에 관한 본격적인 조사는 2011년부터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사회조사는 조사시점에서 지난 1년 동안 현금 또는 물품을 기부한 적이 있는지 조사한다. 예를 들어 2015년 사회조사의 경우 2014. 5. 14 ~ 2015. 5. 13 기간 동안의 기부 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이므로 조사년도 기준으로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부 행위를 조사하는 Giving Korea와 조사기간이 일치하지는 않는다.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개인 기부의 추세를 살펴보고 민간의 개인 기부를 조사하는 통계청의 사회조사 자료와 비교하여 Giving Korea가 과연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인지 여부를 평가하였다. 아래에서는 각각의 연구내용을 별도의 장으로 구별하여 차례로 설명하였다.

II. 2016 Giving Korea 조사 결과 요약

1. 조사 대상 및 조사 설계

2016 Giving Korea 개인 기부 실태조사는 대한민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2016년 4월 29일부터 5월 12일까지 2주일에 걸쳐 이루어졌다³⁾. 2016년 1월말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연령·지역에 비례하여 표본을 할당하고 유선전화와 무선전화 모두를 활용한 전화설문을 진행하여 전국을 대표할 수 있는 총 2,500명의 표본을 확보하였다. 이렇게 표집된 표본에는 유무선 전화의 접촉 확률을 보정하고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치를 고려한 표본별 가중치를 계산하여 표본오차를 수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표 1>은 이렇게 표집된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징에 대한 기초통계량을 보여준다.

<표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변수 기초통계량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표본수
연령	49.49	17.50	19	95	2,500
교육연수	12.73	3.99	4	18	2,448
가구원수	3.02	1.30	1	10	2,458
수도권거주	49.28%	-	-	-	2,500
여성	50.44%	-	-	-	2,500
기혼	64.78%	-	-	-	2,476

주: 원래 설문지의 문항은 응답자의 학력을 초등학교 졸업이하부터 대학원재학이상까지 범주형으로 물어보았으나 이 표에서는 이를 학력수준별로 필요한 교육연수로 전환하여 보고하였다.

2016 Giving Korea에서는 응답자에게 제일 먼저 ‘기부’란 직접 관계없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현금 또는 물품을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작년 한 해 1년 동안 기부를 했던 경험이 있었는지 여부를 묻는 것으로 설문을

3) 2001년, 2002년, 2004년 Giving Korea에서는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는데, 2006년 Giving Korea부터는 설문조사 대상을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다.

시작하였다. 단, 기관에 기부한 경험의 유무만을 응답하게 하였으며 경조사비라든가 종교적 헌금 및 보시의 경우 기부에서 제외된다는 안내를 하였다⁴⁾. 이후 설문 의 구조는 기부 경험이 있었던 사람은 “기부자”로 분류하고, 기부 경험이 없었던 사람은 “비기부자”로 분류하여 그룹별로 상이한 내용을 물어보고, 다음으로 기부자와 비기부자 모두에게 공통된 질문을 묻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2. 기부 참여율 및 기부금액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기부를 경험한 사람의 비율은 45.61%로 나타났다⁵⁾. 이로부터 위에서 정의된 기부의 개념을 적용할 경우 만 19세 이상 우리나라 국민의 2015년 기부 참여율은 45.61%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후 기부자들에게는 작년에 어느 분야에 얼마나 기부하였는지 조사하였다. 단, 기부 분야에 대한 질문을 할 때는 현금 기부만을 물어보았다⁶⁾. 여러 분야에 기부했던 경우 분야별로 모두 응답하도록 하였다.

먼저 기부 분야별 기부 참여율을 살펴보면 전체 기부자들의 58%가 국내자선 분야에 기부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해외구호 분야 22%, NGO 분야 10%의 순으로 기부 경험 비율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기부자들의 관심이 국내 불우이웃을 돕는 데 가장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2〉 기부자들의 기부 분야별 기부 참여율

(단위 : %)

	국내자선	해외구호	교육	의료	문화예술	NGO	지역사회	기타
참여율	58.04	21.60	4.62	3.05	0.40	10.08	7.48	4.37
	(1.58)	(1.33)	(0.70)	(0.55)	(0.19)	(0.99)	(0.84)	(0.65)

주: 1. 표본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2. ()는 표준오차임.

해당 분야에 기부한 사람들의 분야별 평균 기부금액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교육 분야의 평균 기부금액이 216만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NGO 152만원, 지역사회 47만원, 국내자선 28원의 순로 나타났다⁷⁾.

4) 이렇게 정의된 기부의 개념은 통계청의 사회조사에서 정의한 기부의 개념과 동일하다.

5) 이는 표본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계산된 값이다. 총 2,500명의 표본 가운데 실제로 기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인원은 1,157명으로 표본 가중치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기부 참여율은 46.28%로 나타난다.

6) 현물 기부 또한 기부 행위 관점에서 현금 기부와 그 중요성에 차별을 둘 수 없으나 기부자들이 기부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현물 기부의 금전적 가치를 묻는 질문은 하지 않았다. 참고로 전체 기부자 표본에서 현물 기부에만 참여했던 기부자의 비율은 2.44% 수준을, 현물 기부와 현금 기부를 함께 했던 기부자의 비율은 24.69%로 나타났다.

7) 교육 분야와 NGO 분야의 평균 기부금액이 높게 나타난 것은 1억원 이상 기부했다는 응답자가 각각 한 명씩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고액 기부자 한 명은 교육 분야에 1억원을 기부했다고 응답하였고, 다른 한 명은 NGO 분야에 1억 2천만원을 기부했다고 응답하였다. 참고로 이들은 가구 소득과 가구 자산도 매우 높다고 응답하였다.

그렇지만 기부의 경험은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정확한 금액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응답을 거절한 비율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표 3>의 금액이 분야별 평균 기부금액이라고 단정 지어 말하기는 어렵다. 특히 교육 분야와 지역사회 분야의 경우 표본수도 많지 않고 기부자의 10% 이상이 기부금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표본오차와 편의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조심스럽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3> 기부자들의 기부 분야별 평균 기부금액

(단위 : 만원, 명, %)

	국내자선	해외구호	교육	의료	문화예술	NGO	지역사회	기타
기부금액	28.24 (2.15)	29.78 (2.73)	215.75 (152.13)	26.18 (11.58)	22.72 (9.95)	151.73 (122.62)	46.70 (11.03)	37.54 (11.17)
기부자수	662	246	53	35	5	115	85	50
모름/무응답 비율	7.02	6.05	15.65	10.46	0.00	3.42	12.53	13.36

- 주: 1. 표본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2. ()는 표준오차임.
 3. 모름/무응답 비율은 두 번째 행에서 기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기부자들 가운데 기부금액을 모른다고 응답하거나 응답을 거부한 사람들의 비율임.

기부자들의 기부 분야별 기부금액을 모두 합하여 작년 한 해 동안의 총 기부금액을 구하면 다음 <표 4>와 같은 결과를 얻는다. 기부자들에 한정할 경우 평균 기부금액은 57만원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중간값은 13만원으로 나타나 평균 금액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는 전체 표본에 1억원 이상 기부했다고 응답한 고액 기부자가 2명이 포함되어 발생한 현상이다. 2명의 고액기부자가 전체 기부자들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표본 가중치를 적용하였을 때 0.24%에 이른다.

<표 4> 총 기부금액 기초통계

(단위 : 만원, 명)

	평균	표준오차	중간값	표본수
기부자 표본	56.76	14.89	12.5	1,055
전체 표본	24.38	6.42	0.00	2,415

- 주: 1. 모름/무응답의 경우 전체 표본에서 제외하였음.
 2. 표본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우리나라 전체 기부자의 평균 기부금액에 대한 추정치로서 과연 <표 4>의 평균값과 중간값 가운데 어느 통계치를 적용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것인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 평균적인 기부자의 기부금액에 더욱 관심이 많다면 이에 대한 추정치로 중간값을 사용하거나 혹은 2명의 고액기부자를 이상치(outlier)로 간주하고 이들을 제외한 평균값(37.3만원)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은 대안이 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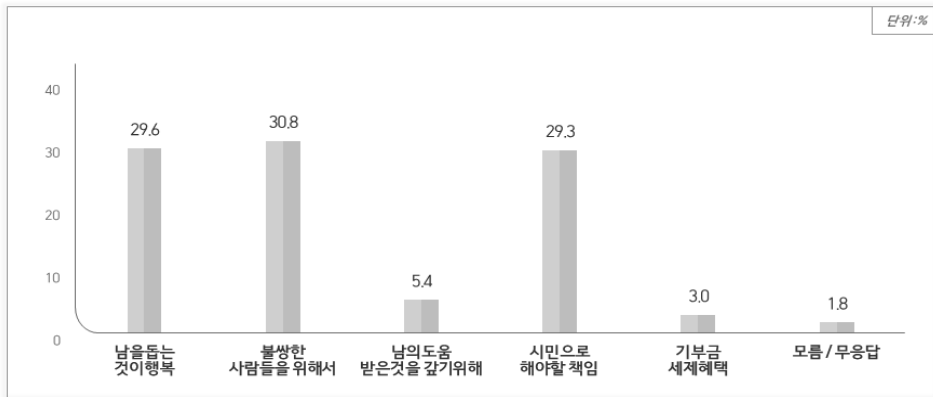
있다. 그러나 중간값은 기부금액 전체 분포를 고려하지 않는 문제가 있고, 1억원 이상을 제외하는 방식은 이상치 기준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각각의 통계량에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기부금액의 분포를 추정하고 분포에 대한 종합적인 해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⁸⁾.

3. 기부자 그룹 주요 조사 결과

이번 조사에서 별도로 기부자들에게는 기부를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기부단체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기부의 결정방식 등을 물어보았다. 제일 먼저 기부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는 [그림 1]에 나타나 있다. 기부자들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기부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0.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남을 돕는 것이 행복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9.6%, 시민으로서의 책임이라는 응답이 29.3%로 유사한 비율을 보이며 뒤를 이었다. 남의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한 보답의 성격 혹은 기부금의 세제혜택이 기부의 주된 계기로 작용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이 둘을 합하여도 10%가 되지 않았다.

[그림 1]은 기부의 중요 기제로서 교육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그림의 결과는 사회 전체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시민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기부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 기부에 대한 제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어린 시절부터 교육과정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내가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기회를 가지게 되면 기부에 대한 선호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림 1] 기부를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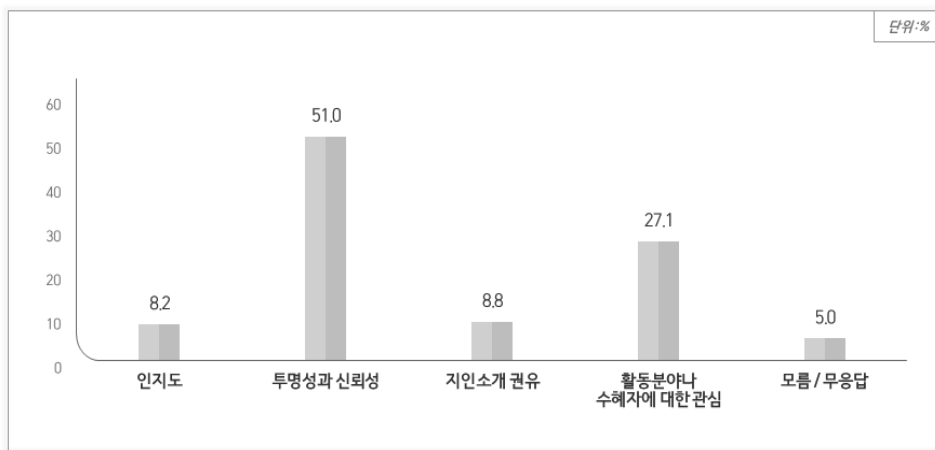
8) 우리나라 국민의 개인 기부 총액을 추정하고자 한다면 이때는 비기부자를 포함하여 전체표본의 평균값에 표본추출 대상이 되는 전체 국민의 수를 곱하는 방식을 취하면 된다. 단, 표본오차를 반영하기 위하여 추정치에 대한 신뢰구간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

기부자들이 기부단체를 선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는 투명성과 신뢰성이 과반수를 넘는 51%를 차지하였다. 기부단체의 활동분야나 주요 수혜자에 대한 관심은 27%를, 지인의 소개와 권유 및 기부단체의 인지도는 각각 9%와 8%에 머물러 그다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자들이 기부단체를 선택할 때 기부단체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가장 큰 가중치를 둔다고 응답한 것은 기부자들이 기부단체를 그만큼 잘 모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볼 수도 있다. 즉, 기부단체가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러한 활동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또한 내가 기부한 기부금이 어떻게 사용되며 관리되고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기부자의 우려가 반영되어 이와 같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한 기부단체를 선호한다는 해석이다.

그런데 기부자들이 기부단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알아보기 위해 스스로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이 결과는 새로운 기부자를 발굴하고 기부금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 기부단체가 먼저 기부자들에게 운영과 활동에 대한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널리 홍보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그림 2] 기부단체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요건



Giving Korea 2016에서는 처음으로 기부자의 기부결정 과정에서 기부에 관한 주된 결정을 주로 누구와 상의하여 결정하는지 물어보았다. 전체 기부자의 74%는 본인 혼자 결정한다고 응답하여 개인의 선호가 기부 행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결혼 여부에 따라 분석해보면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 본인 혼자 결정하는 비율이 배우자가 없는 미혼의 경우와 비교하여 20% 이상 낮게 나타나는 반면에 배우자와 함께 하는 비율이 30% 가까

이 차지하여 부부가구의 경우 기부의 결정 과정을 별도로 분석해볼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⁹⁾.

〈표 5〉 기부에 관한 주된 결정을 상의하는 사람

(단위 : %)

	미혼	결혼
본인 혼자 결정	89.13	67.90
배우자	0.72	28.98
자녀	1.45	1.04
부모	3.99	0.00
가족 이외 지인	3.62	1.15
기타	1.09	0.23
모름/무응답	-	0.69
합계	100	100

주: 표본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은 결과임.

4. 비기부자 그룹 주요 조사 결과

비기부자들에게는 별도로 작년 한 해 동안 기부를 하지 않은 가장 중요한 이유, 일생 동안 기부를 해본 경험 유무 및 본인은 기부를 하지 않았지만 가구 내에 기부를 한 사람이 있었는지 여부를 물어보았다.

비기부자들 가운데에서 64%는 일생 동안 기부를 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렇다면 과거 기부를 했던 경험이 본인의 기부에 대한 현재의 선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표 6〉은 이러한 가능성을 보여준다. 기부에 대한 현재의 관심은 기부 경험 유무에 관계없이 비슷한 비율을 보인다. 그러나 기부를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일수록 기부단체를 신뢰하지 못하거나 기부단체와 기부방법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작년에 기부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기부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기부에 참여했던 과거의 경험에서 기부단체에 대한 신뢰성이 하락하였거나, 적절한 기부단체를 찾아 원하는 기부를 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느껴서 현재 기부를 망설이는 경향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유추해볼 수 있다. 과연 이러한 해석이 맞는 것인지는 더 자세히 분석해보아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지만 〈표 6〉을 기부단체들에게 과거의 운영방식을 성찰하고 앞으로의 운영방식에 대한 고민도 던져주는 결과로 보기에는 충분해 보인다.

9) 부부가구에서 남편과 아내가 선호하는 기부 분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collective model을 적용하면 각각의 배우자의 협상력(bargaining power)에 따라 가구의 기부결정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일 수 있다. 송헌재(2014)는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였다. 다른 한편에서는 가구의 기부금 세금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세금혜택이 높은 배우자의 명의로 기부금을 납부할 유인도 존재한다.

〈표 6〉 기부를 하지 않은 가장 중요한 이유

(단위 : %)

	기부 유경험	기부 무경험
기부에 관심이 없음	13.55	12.01
경제적 여력이 없음	51.12	63.77
기부단체를 신뢰할 수 없음	20.85	11.39
기부단체/기부방법을 모름	10.25	7.66
국가의 세금으로 할 일이라고 생각함	1.88	2.07
모름/무응답	2.36	3.11
합계	100	100

주: 1. 일생 동안 기부 경험 유무를 묻는 질문에서 '모름/무응답'한 11명을 제외하였음.

2. 표본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은 결과임.

본인은 2015년에 기부를 하지 않았지만 가구의 다른 가족은 기부를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표 7〉은 일생 동안의 기부 경험 유무에 따라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이 어떻게 분포되었는지 보여준다. 기부 유경험자들의 가족이 기부에 참여한 비율이 기부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의 가족이 기부에 참여한 비율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표의 결과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겠지만 함께 사는 가족 중에서 기부에 참여하는 가구원의 존재가 본인의 기부에 대한 선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해석 또한 가능해 보인다.

한편으로는 이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하지 않은 비율이 25~30%에 달하는 점은 생각 해볼 여지를 남겨둔다. 기부자들 사이에서 기부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하는 비율이 70% 이상 차지한 것처럼 비기부자들 또한 기부를 개인의 고유한 영역으로 인식하여 타가구원의 기부에 관한 결정에 무관심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고, 반면에 비기부자들이 기부 행위 자체에 반대하는 성향이 있어서 기부를 하고 싶은 다른 가구원들이 비기부자 모르게 기부를 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 수도 있다. 이 결과에 대한 원인 분석 자체는 그다지 큰 의미를 가질 수 없을지 모르나, 향후 이와 관련된 연구 주제를 발굴하여 기부에 관한 새로운 시사점을 찾는 데 활용될 여지는 있다고 여겨진다.

〈표 7〉 2015년에 기부에 참여한 타 가구원 유무

(단위 : %)

	기부 유경험	기부 무경험
작년에 기부를 한 가구원이 있음	25.09	8.90
작년에 기부를 한 가구원이 없음	45.58	65.84
모름/무응답	29.33	25.26
합계	100	100

주: 1. 일생 동안 기부 경험 유무를 묻는 질문에서 '모름/무응답'한 11명을 제외하였음.

2. 표본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은 결과임.

5. 2016 기부 계획

과연 2016년 올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기부 계획은 어떻게 될까? 2016 Giving Korea 조사 시점이 4월말~5월초이었음을 감안하여 조사 시점 현재까지의 기부를 포함하여 2016년 12월말까지의 기부 계획을 조사하였다. 단, 물품을 제외한 금전 기부에 대한 계획을 물어보았다. <표 8>은 기부자 그룹과 비기부자 그룹을 구분하여 2016년 기부 계획을 정리하였다. 작년에 기부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올해의 기부 계획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표 8> 2016년 기부 계획

(단위 : %)

	기부자	비기부자
기부 계획 있음	79.73	14.66
기부 계획 없음	16.61	79.95
모름/무응답	3.66	5.39
합계	100	100

주: 표본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표 8>에서 주목할 사실은 기부자 중에서도 17%는 올해 기부 계획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비기부자의 15%는 올해 기부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점이다. <표 9>를 살펴보면 2015년 기부금액수가 클수록 올해도 기부를 계획할 확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지만 기부에 대한 계획을 밝힌 사람들이 아예 이 질문에 모른다고 응답하거나 응답을 거절한 사람들보다는 작년 기부금액수가 약간 높게 나타난 점은 기부자들에게 기부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의 중요성을 약하게나마 시사한다.

<표 9> 기부 계획 유무에 따른 기부자 그룹의 2015년 기부금 통계

(단위 : 만원, 명)

	평균	표준오차	중간값	표본수
2016 기부 계획 있음	65.27	3.62	20.00	909
2016 기부 계획 없음	19.26	3.60	5.00	189
모름/무응답	13.62	4.38	3.00	42

주: 표본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표 10>에서는 비기부자들을 2016년 기부 계획 여부에 따라 세 그룹(A, B, C)으로 분류하여 그룹별로 작년에 기부를 하지 않은 가장 중요한 이유를 살펴보았다. 올해 기부할 계획 있다고 응답한 A 그룹에서 작년에 기부를 하지 않은 이유로 경제적 여력이 없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B 그룹과 C 그룹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반면에 기부단체와 기부방법을 모른다는 응답의 비율은 A 그룹에서 가장 높았다. 즉, 2015년 비기부자들 가운데 2016년 기부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기부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경우 기부 계획이 실제로 기부실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표 10〉 기부 계획 유무에 따른 2015년 기부를 하지 않은 가장 중요한 이유

(단위 : %)

	2016년 기부 계획 있음(A)	2016년 기부 계획 없음(B)	모름/무응답(C)
기부에 관심이 없음	16.30	12.70	11.25
경제적 여력이 없음	35.33	59.68	48.75
기부단체를 신뢰할 수 없음	23.37	15.85	23.75
기부단체/기부방법을 모름	21.74	7.23	7.50
국가의 세금으로 할 일이라고 생각함	1.09	2.04	2.50
모름/무응답	2.17	2.50	6.25
합계	100	100	100

주: 표본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은 결과임.

다음으로는 2016년 기부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기부자와 비기부자 모두에게 〈표 3〉에 있는 각각의 기부 분야에 대하여 얼마나 기부할 것인지 물어보았다. 기부자 그룹과 비기부자 그룹의 평균 기부 계획금액은 각각 50.92만원과 49.75만원으로 조사되어 작년 기부 여부에 따른 올해 기부 계획금액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부 계획은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그 금액을 정확하게 응답하지 않은 비율이 기부자 그룹에서 12%, 비기부자 그룹에서는 28%를 보인만큼 〈표 11〉의 결과를 2016년 평균 기부금 예상치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¹⁰⁾.

〈표 11〉 2016년 기부 계획금액 통계

(단위 : 만원, 명)

	평균	표준오차	중간값	표본수
기부자	50.91	9.07	20.00	804
비기부자	49.75	24.54	10.00	137

주: 1. 표본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2. 기부 계획금액을 정확하게 응답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였음.

한편 이번 2016 Giving Korea에서는 올해 기부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기부자들과 비기부자들 가운데 약 20% 정도를 추출하여 2017년 초에 과연 계획한 만큼 기부

10) 전화설문조사에서는 각각의 기부 분야에 대해 기부 계획이 있는지 묻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 구체적인 금액을 다시 문의하였다. 어느 한 분야에 대해서라도 계획은 있다고 응답하였지만 금액에 대해 모름/무응답한 경우에는 모든 분야를 합한 총기부 계획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다.

를 했는지 실천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만일 계획과 실행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에 대해서도 대략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기부 행위는 개인의 선호뿐만 아니라 환경의 변화에도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계획과 실천의 일치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 분석을 통해 연구자와 기부단체 및 정부 정책 담당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Ⅲ. 2016 Giving Korea 기부관련 제도와 운영에 대한 인식조사

대부분의 정부에서는 기부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위로 간주하고 국민들에게 이를 장려하기 위해 기부금에 대한 세금혜택을 부여한다. 과연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러한 혜택에 대하여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을까? 한편, 개인 기부자들 입장에서 기부단체의 운영과정을 자세히 알기 어렵다. 기부단체에서 활동 내역과 재정 상태를 공시하고 있긴 하지만 기부자 입장에서 이러한 정보를 일일이 찾아서 확인하는 것이 귀찮기도 하고 불편하기 때문이다. 기부단체에 대한 무지가 결국 기부단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기부단체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파악해볼 필요성이 있다. 2016 Giving Korea에서는 새로운 질문을 추가하여 이러한 주제들에 관하여 조사를 시도하였다.

1. 기부금 세금혜택

이번 조사에서는 먼저 기부금 세금혜택 인지 여부에 대해 물어보았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총 응답자의 64%가 기부금에 세금혜택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 개인들이 납부한 기부금에 대한 대표적인 세금혜택에는 근로소득자들에게 일정 한도 내에서 기부금의 15%를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와 종합소득자들에게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2014년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48%에 이를 만큼 저소득 근로자들 가운데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부금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민들 대부분이 이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기부자 집단이 비기부자 집단보다 세금혜택 인지비율이 20% 이상 높게 나타나서 제도의 수혜 대상자들은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기부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12〉 기부금 세금혜택 인지여부

(단위 : %)

	기부자	비기부자	총 응답자
알고 있음	77.41	53.24	64.26
모르고 있음	22.59	46.76	35.74
합계	100	100	100

주: 표본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다음으로 이러한 세금혜택 부여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았다. 전체 응답자의 66%는 기부금이란 정부가 할 일을 개인이 대신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세금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였으며 23%는 기부금이 개인의 선택이므로 세금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선택하였다. 10% 정도의 응답자들은 이에 의견 개진을 하지 않았는데 이중에서는 이 질문에 대하여 판단을 유보한 사람들도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기부금 세금혜택이 필요성에 대하여 기부자 집단과 비기부자 집단에서 반대하는 비율은 비슷하게 나타난 반면에 찬성하는 비율은 기부자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를 두고 기부금 세금혜택이 기부를 유인하는 작용이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이들 가운데에는 기부를 한 경험을 통해 세금혜택을 알게 된 사람들도 포함되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부금 세금혜택이 기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보다 엄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표 13〉 기부금 세금혜택 필요성에 대한 의견

(단위 : %)

	기부자	비기부자	총 응답자
필요함	71.03	62.23	66.24
필요 없음	22.82	23.93	23.43
모름/무응답	6.15	13.84	10.33
합계	100	100	100

주: 표본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기부금 세금혜택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3/4이 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하였고 5% 정도만 판단을 유보하였거나 응답을 하지 않은 반면에 기부금의 세금혜택을 모르고 있던 응답자들의 경우 50% 미만이 세금혜택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고 응답하지 않은 비율도 20%에 달한다.

그런데 기부금 세금혜택을 모르고 있던 사람들 중에도 세금혜택 필요성에 찬성한 비율이 찬성하지 않은 비율보다 13%p 높게 나타난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이는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¹¹⁾로서 기부금에 대한 세금혜택을 모르고 있던 사람들조차 기부금이 정부의 역할을 일정부분 대신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이 개인적 선택에 불과하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표 14〉 기부금 세금혜택 인지여부에 따른 세금혜택 필요성에 대한 의견

(단위 : %)

	알고 있음	모르고 있음
필요함	75.70	46.75
필요 없음	18.72	33.55
모름/무응답	5.58	19.70
합계	100	100

주: 표본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은 결과임.

그러므로 〈표 13〉과 〈표 14〉의 결과를 종합하면 우리나라 국민들 사이에서는 전반적으로 기부금 세금혜택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여론이 우세하게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으로 종교단체 기부금에 주고 있는 세금혜택의 찬반 여부를 물어보았다. 총 응답자들의 42%가 이 제도에 찬성하고 48%가 반대하였으며 10%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모름/무응답을 제외할 경우 반대하는 여론이 찬성하는 여론보다 6%p 높은데 이러한 차이는 1% 유의수준에서 두 비율이 같다는 가설을 기각한다¹²⁾.

재밌는 것은 비기부자들보다 기부자들 사이에서 반대의견이 더 많다는 점이다. 다만 본 조사에서 종교단체 현금과 보시 성격의 기부금은 기부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기부자들 중에는 종교단체에 기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 이들 가운데 종교단체 현금을 단순히 개인의 선택적 행위로 판단하여 기부금 세금혜택에 대한 거부감이 표출되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이 결과가 전체 기부자를 대표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표 15〉 종교단체 기부금 세금혜택 찬반 여부

(단위 : %)

	기부자	비기부자	총 응답자
찬성함	42.26	40.90	41.52
찬성하지 않음	50.69	45.85	48.06
모름/무응답	7.05	13.25	10.42
합계	100	100	100

주: 표본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11) P-value=0.0000.

12) P-value=0.0000.

〈표 16〉은 기부금 세급혜택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과 종교기부금에 세급혜택을 주는 현재도의 찬성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이 동시에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그 분포를 표로 정리하였다. 기부금 세급혜택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고 종교기부금 세급혜택도 찬성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렇지만 기부금 세급혜택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종교기부금에 대해서는 세급혜택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이 그 다음으로 높았다. 즉, 현재의 기부금 세제가 좋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가장 많았지만 종교기부금의 세급혜택은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게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국민들의 반응은 앞으로의 기부금 세제 개편과정에서 여론 수렴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 결과를 종교기부금과 기타 자선목적의 기부금의 세급혜택 차별을 원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게 있다는 사실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기부금 세급혜택의 필요성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종교기부금 세급혜택은 찬성하는 사람들의 비율도 소수이긴 하지만 무시하지 못할 만큼 나타난 점을 미루어 볼 때 전화설문 응답자들이 질문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거나 기부금 관련 세제에 일관성 있는 의견을 가지고 있지 못할 가능성을 의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두 질문에 하나라도 의견을 개진하지 않은 사람들의 비율이 18%에 달하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즉, 〈표 16〉의 결과를 단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며 앞으로 이와 같은 주제에 연구자들과 정부 정책 담당자들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표 16〉 기부금 세급혜택 필요성 여부와 종교기부금 세급혜택 찬성 여부 분포

(단위 : 명, %)

기부금 세급혜택	종교기부금 세급혜택			합계
	찬성함	찬성하지 않음	모름/무응답	
필요함	828 (33.12)	682 (27.28)	115 (4.60)	1,625 (65.0)
필요하지 않음	150 (6.00)	401 (16.04)	54 (2.16)	605 (24.2)
모름/무응답	80 (3.20)	85 (3.40)	105 (4.20)	270 (10.8)
합계	1,058 (42.32)	1,168 (46.72)	274 (10.96)	2,500 (100)

주: 1. 표본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은 결과임.

2. ()는 전체 응답자(2,500명)중에서 해당 cell이 차지하는 비율임.

2. 기부단체 간접비 비율

과연 우리나라 국민들은 우리나라 기부단체들이 전체 기부금 모금액 중에서 몇 % 정도를 기부금 운용관련 행정비용인 간접비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할까? <표 17>은 이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여주는데 응답자들은 작년의 기부 경험과 상관없이 30%를 약간 넘는 수준에서 간접비가 운영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그런데 <표 17>은 이 질문에 대해 응답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작성되었음을 유의해야한다. 기부에 대한 관심이 덜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비기부자 그룹에서는 절반 이상이 질문에 대한 적절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 기부자 그룹에서조차 40%가 모른다고 응답하거나 응답을 하지 않았다. 전화설문의 특성상 응답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개념에 대한 질문은 잘 대답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난다. 아무래도 대면면접과 비교하여 전화설문으로는 면접원들이 응답자들에게 질문의 의미와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고, 응답자들도 이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덜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설문방식의 차이로만은 이처럼 높게 나타난 무응답 비율을 설명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는 기부금의 간접비라는 개념 자체에 익숙하지 않거나 혹은 평소에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접해보지 못한 응답자들이 짧은 설문시간 동안 미처 합리적인 답을 생각해내지 못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표 17> 간접비 사용 예상 비율

(단위 : %, 명)

	평균	표준오차	중간값	표본수
기부자	32.47	0.80	30.00	659
비기부자	33.55	0.85	30.00	680

주: 1. 표본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2. 간접비 사용 예상 비율을 묻는 질문에 모름/무응답 경우를 제외하였음. 기부자 그룹에서는 40.35%인 460명이, 비기부자 그룹에서는 51.54%인 701명이 응답하지 않았음.

위 질문에 바로 뒤이어 기부금 모금단체들이 전체 기부금에서 기부금 운용관련 행정 비용인 간접비를 몇 % 정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표 17>과 <표 18>의 응답결과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20% 수준의 간접비 사용비율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기부단체들이 이보다 10%p 이상 간접비를 더 많이 쓰고 있다고 짐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 18>에서는 모름/무응답의 비율이 크게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 기부단체들의 기부금 운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에 대해 각자 자신이 생각하는 적정비율을 응답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표 18>의 결과는 <표 17>의 질문에 응답한 응답자들로 한정하여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표 17>의 응답여부가 <표 18>의 응답결과에 편의를 가져온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표 18〉 간접비 사용 적정 기대 비율

(단위 : %, 명)

	평균	표준오차	중간값	표본수
기부자	20.79	0.49	20.00	911
비기부자	19.11	0.55	20.00	903

주: 1. 표본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2. 간접비 사용 적정 기대 비율을 묻는 질문에 모름/무응답 경우를 제외하였음. 기부자 그룹에서는 20.09%인 229명이, 비기부자 그룹에서는 33.60%인 457명이 응답하지 않았음.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생각이 기부단체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에 부정적 인식을 만들게 하는 작용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국민들의 인식 결과만 가지고 기부단체의 신뢰성과 투명성에 대해 단정 지어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기부단체들 입장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간접비 운용비율 수준에 대하여 왜 20% 정도를 적절하다고 여기고 있으며 실제로는 10%p 이상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면밀하게 분석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기부단체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파악하고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이 뒤따라야 하는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IV. 사회조사 자료와 비교

1. 기부 참여율

Giving Korea는 2002년 조사부터 종교적 목적의 현금과 보시와 같은 기부금을 따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기부 참여를 정의할 때 현물 기부를 포함하여 왔다. [그림 3]은 종교적 현금과 보시는 제외하고 현물 기부는 포함하여 추정한 기부 참여율의 변화 추세를 보여준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가 관찰된다.

[그림 3] Giving Korea 기부 참여율 추세 변화

(단위 : %)



주: 1. 2003~2013년은 Giving Korea 2014 p.122 [그림 12]의 순수기부 참여율 결과를 인용하였음.

2. 2013년을 제외하고 표본의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통계청에서 사회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발표한 기부 참여율 통계는 <표 19>와 같다. 통계청에서 기부 참여율을 추정할 때 적용한 기부에 대한 정의는 [그림 3]에 적용된 정의와 동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 3]과 <표 19>를 비교하면 두 조사 사이에 기부 참여율 통계수치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2011년 이후 기부 참여율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은 두 조사에서 일치한다.

<표 19> 사회조사 기부 참여율

(단위 : %, 명)

	2011	2013	2015
기부 참여율	36.4	34.6	29.9
표본수	(38,012)	(37,648)	(39,282)

- 주: 1. ()는 조사된 표본수를 의미함.
 2. 사회조사는 통계청 보도자료 「2015년 사회조사 결과」(2015. 11. 26)에서 인용하였음.
 3. 사회조사의 각 년도 기부 참여율은 조사시점 기준으로 지난 1년 동안의 통계임.
 4. 표본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그런데 Giving Korea와 사회조사는 조사대상에서 차이가 있다. Giving Korea는 만 19세 이상의 개인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반면에 사회조사는 만 13세 이상의 개인을 조사한다. <표 20>에서는 조사대상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사회조사에서 만 18세 이하를 제외하고 기부 참여율을 재추정한 결과를 제시하여 Giving Korea와 비교하였다. 조사 대상 연령을 일치시켜도 Giving Korea와 사회조사의 기부 참여율 통계의 차이는 여전히 14~22%p 정도로 크게 나타난다.

<표 20> 기부 참여율 통계 비교

(단위 : %, 명)

2011		2013		2015	
Giving Korea	사회조사	Giving Korea	사회조사	Giving Korea	사회조사
57.5	35.5	48.5	34.7	45.6	29.6
(1,029)	(33,827)	(1,007)	(34,138)	(2,500)	(35,962)

- 주: 1. ()는 조사된 표본수를 의미함.
 2. 사회조사는 만 19세 이상으로 한정하여 저자가 계산한 결과임.
 3. 사회조사의 각 년도 기부 참여율은 조사시점(5월) 기준으로 지난 1년 동안의 통계임.
 4. 표본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단, 2014 Giving Korea 자료에 가중치 변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Giving Korea 2013년은 표본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은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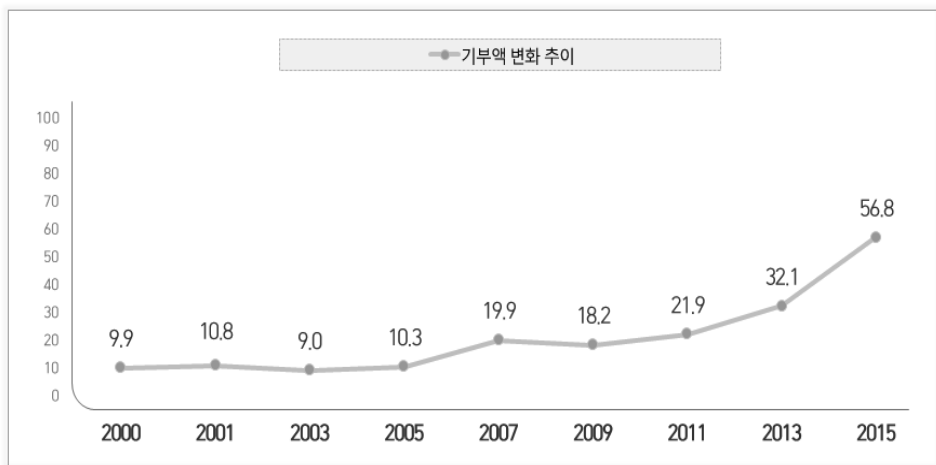
2. 기부금액

[그림 4]는 Giving Korea 조사에서 기부에 참여한 사람들의 평균 기부금액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처음 조사가 시작된 2000년에 비하여 2015년에 다섯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과 [그림 4]를 종합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Giving

Korea 조사에서 기부에 참여한 사람들의 비율은 줄어드는 대신 기부자 개인 1인당 기부금액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4] Giving Korea 기부자의 평균 기부금액 추세 변화

(단위 : 만원)



- 주: 1. 2000~2013년은 Giving Korea 2014 p.126 [그림 15]의 순수기부액 결과를 인용하였음.
 2. 2000~2013년은 Giving Korea는 현물 기부의 경우 그 금액의 가치를 환산하여 기부금 계산에 포함하였음. 2015년은 현물 기부의 가치를 포함하지 않은 결과임.
 3. 2013년을 제외하고 표본의 기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사회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기부자들의 평균 기부금액을 구하면 <표 21>과 같다. 사회조사는 현물 기부의 경우 기부로 간주하기는 하지만 금액적 가치를 별도로 조사하지 않는다. 따라서 <표 21>은 오직 현금 기부금액의 평균을 나타낸다. 사회조사의 기부금액 정의는 2016 Giving Korea와는 일치하지만 그 이전의 Giving Korea에서는 현물 기부도 금액적 가치를 환산하여 조사하였다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그림 4]의 Giving Korea 2015년 이전의 기부금액과 사회조사 기부금액을 비교할 때는 이러한 차이를 감안해야 한다.

<표 21> 사회조사 기부자의 평균 기부금액

(단위 : 만원, 명)

	2011	2013	2015
평균 기부금액	16.1	19.9	31.0
기부자수	(13,213)	(12,225)	(10,767)

- 주: 1. 사회조사에서는 현물 기부는 제외하고 현금 기부의 기부금액만을 포함한 결과임.
 2. 사회조사의 각 년도 평균 기부금액은 조사시점 기준으로 지난 1년 동안의 통계임.
 3. 평균 기부금액은 표본 기중치를 적용하여 계산한 결과임.
 4. ()는 개인 기중치를 적용한 현금 기부자수를 의미함.

〈표 22〉에서는 두 자료의 비교를 위해 기부금 범위를 현금 기부로 한정하고 만 19세 이상의 기부자들만을 대상으로 평균 기부금액을 구해본 결과를 제시하였다. 2011년의 경우 Giving Korea와 사회조사가 서로 유사한 양상을 보여준다. 그러나 2013년에는 그 차이가 8.6만원으로 벌어졌고 2015년에는 차이의 크기가 훨씬 커졌다. 그런데 2015년 Giving Korea의 경우 1억원 이상을 기부한 2명의 기부자의 존재로 평균 기부금액이 대폭적으로 상승한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 두 사람을 제외하면 평균 기부금액이 37.3만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사회조사 결과와의 차이가 크게 줄어든다.

〈표 22〉 기부자의 평균 기부금액 비교

(단위 : 만원, 명)

2011		2013		2015	
Giving Korea	사회조사	Giving Korea	사회조사	Giving Korea	사회조사
21.1 (581)	18.8 (11,607)	30.1 (477)	21.5 (11,178)	56.8 (1,140)	33.7 (9,793)

- 주: 1. 현물 기부는 제외하고 현금 기부의 기부금액만을 포함한 결과임.
 2. 사회조사는 만 19세 이상으로 한정하여 저자가 계산한 결과임.
 3. 사회조사의 각 년도 기부 참여율은 조사시점(5월) 기준으로 지난 1년 동안의 통계임.
 4. 평균 기부금액은 표본 가중치를 적용하여 계산한 결과임.
 5. ()는 개인 가중치를 적용한 현금 기부자수를 의미함. Giving Korea 2013년은 가중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서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았음.

3. 차이의 원인 추론

과연 Giving Korea와 사회조사에서 이러한 차이는 왜 발생하는 것일까? 하나의 가능한 설명으로 기부라는 개념의 속성을 한 가지 이유로 생각해볼 수 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성경의 구절처럼 기부를 남몰래 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고 설문조사에서 본인의 기부 경험에 대하여 솔직하게 응답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Giving Korea 조사의 경우 처음부터 기부에 대한 조사임을 밝히기 때문에 만일 본인의 기부 경험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기부자들의 경우 설문조사 자체를 거절할 개연성이 있지만 사회조사는 기부를 포함하여 복지, 문화, 여가, 소득, 소비, 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들이 설문조사에 포함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만일 그렇다면 사회조사에 자신의 기부 행위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의 비율이 조금 더 높아서 기부 참여율이 Giving Korea에 비하여 낮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가설을 자료를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검증할 방법은 없지만 각각의 자료에 포함된 고액 기부자 분포를 살펴보면 추론에 타당성에 대하여 어느 정도 논의할 여지가 있다. 2015년 사회조사의 경우 조사된 현금 기부액 최대값은 3,000만원에 머

문다. 1,000만원 이상을 기부한 사람은 모두 8명으로 만 19세 이상 현금 기부를 했다고 응답한 전체 기부자의 0.115%에 불과하다. 그런데 2016 Giving Korea에서는 1,000만원 이상을 기부했다고 응답한 기부자들이 4명 포함되어 전체 기부자들의 0.387%를 차지한다 .

그러나 2012 Giving Korea에는 1,000만원 이상 고액기부자가 한 명도 없었고, 2014 Giving Korea에는 한 명 포함되었던 점을 미루어볼 때 이러한 추론이 그다지 설득력 있게 들리지는 않는다. 다만 이전의 Giving Korea에는 약 1,000명의 표본만 포함되었기 때문에 고액기부자들이 아예 표집과정에서 누락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표본을 2.5배 늘린 2016 Giving Korea에서 고액 기부자 표본이 표집된 것은 향후 진행될 Giving Korea에서 남몰래 하는 기부 행위 가설에 대한 검증가능성의 여부를 남겨놓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표 23〉 1,000만원 이상 고액 기부자 비율 및 평균 기부액

(단위 : %, 만원)

	2011		2013		2015	
	Giving Korea	사회조사	Giving Korea	사회조사	Giving Korea	사회조사
비율	0.00	0.097	0.210	0.143	0.387	0.115
기부금액	-	1,400	1,360	1,200	6,010	1,340

- 주: 1. 기부자 중에서 1,000만원 이상 고액기부자 비율임.
 2. 사회조사는 만 19세 이상으로 한정하여 저자가 계산한 결과임.
 3. 사회조사의 각 년도 기부 참여율은 조사시점(5월) 기준으로 지난 1년 동안의 통계임.
 4. 표본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은 결과임.

〈표 23〉의 결과만을 가지고 Giving Korea 자료의 신뢰성을 평가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Giving Korea와 사회조사 자료의 차이를 서로 비교하고 분석하는 것은 기부 관련 자료의 상호 신뢰성을 검토한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일이다. 현재 주어진 정보만을 가지고 이러한 차이의 원인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검증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향후 두 자료가 쌓여서 풍부한 정보가 가능해지면 연구자들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볼 만한 좋은 주제라고 생각한다.

V.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2016 Giving Korea의 조사 결과를 여러 방면에서 분석하고 논의하였다. 제일 먼저 2016 Giving Korea가 이전의 Giving Korea와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설명하고 기부 참여율과 평균 기부금액을 중심으로 주요 결과를

요약하였다. 다음으로는 이번 2016 Giving Korea 조사에서 새롭게 조사한 내용의 조사 결과를 토론함으로써 개인 기부에 대한 독자들의 사고와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노력하였다. 마지막으로 Giving Korea 자료와 통계청의 사회조사 자료를 비교함으로써 Giving Korea 자료의 신뢰성에 대하여 간략한 논의를 하였다.

이전과 달라진 Giving Korea는 기존의 Giving Korea의 전통은 최대한 살리고 시대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조사 방식의 변경으로 인해 여러 질문에서 응답자들이 응답하지 않은 경우가 발견되는 한계를 갖고 있다. 특히 소득과 자산과 같이 가구 경제 상태를 묻는 질문에 무응답한 표본이 적지 않게 분포되어 있어서 회귀 분석 등을 적용할 때 이를 고려한 적절한 추정방법을 고민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앞으로 Giving Korea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이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가 기부 관련 종사자 및 연구자들과 기부에 관심이 있는 일반 국민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글을 맺는다.

■ 참고문헌

- 송헌재, 「가구 유형별 기부행태 및 가구 내 기부결정」,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2014년 기획 연구 보고서』, 2014.
-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2013년 한국인의 기부지수 (유산기부, 상호부조) 및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전략 제시: 한국기부의 재발견-겉돈부터 유산까지」, 『Giving Korea 2014』, 2014.
- 통계청, 「2015년 사회조사 결과」, 보도자료 (2015. 11. 26)